청소년 희망택시 사업 시범 추진

서귀포시, 내년부터 취약계층 고등학생 대상 지원 시정공감 콘서트서 시민제안을 사업으로 구체화

서귀포시가 야간 자율학습 등 밤늦 게까지 공부하는 청소년들의 안전 한 귀가를 돕기 위해 취약계층 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희망택시 보조사업'을 내년부터 시범 운영키 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은 시가 지난 8월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여해 열린 '2019 시정공감 토크콘서트'에서 한 시민의 제안을 사업으로 구체화한 것이어서 눈길 을 끈다.

시는 내년에 사업비 1억원을 들여 시 거주 취약계층 고등학생을 대상 으로 청소년희망택시 보조사업을 시 범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학교에서 밤늦게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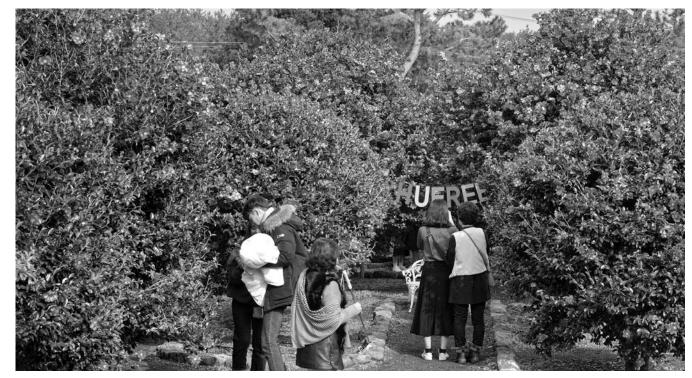
공부하는 취약계층 고등학생들의 이 동편의와 안전한 귀가 지원을 위한 것으로, 홍보와 신청자 모집을 거쳐 새학기가 시작되는 내년 3월부터 추 진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600명으로, 개인별로 연간 16만8000원(분기별로 최대 4 만2000원)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이 정해지만 학생들은 이용신청 후 청소년 희망택시 티머니카드를 수령·이용등록 후 택시를 이용하고 분기별로 이용대금을 신청해 지급받 는 방식이다.

청소년 희망택시 지원액은 현재 도내 70세 이상을 대상을 지원하는 어르신 행복택시 지원액에 맞춘 것 인데, 행복택시가 지원액을 회당 최 대 7000원으로 제한하는 것과 달리 회당 상한은 두지 않는다. 원거리 고 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적잖은 상황을 감안해서다.

시는 최근 사업의 홍보와 협의를 위해 개인택시 서귀포시지부와 관내 10개 고등학교 방문을 마쳤고, 인터넷접수를 위해 시 홈페이지에 희망택시메뉴 신설을 관련 부서와 협의중이다. 또 앞으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도업무 협조를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학교에서 밤늦게 귀가하는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택시이용료 부담을 줄 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 다"며 "시민이 제안한 내용을 사업 으로 구체화시켜 지역의 청소년들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의미도 있다"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만개한 애기동백꽃 초겨울 추위가 다소 풀리면서 평년 기온을 되찾은 24일 서귀포시 남원읍에 위치한 휴애리 자연생활공원에 애기동백꽃이 만개해 제주의 이국적인 모습을 선사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공사 안해도 보조금 지급… 줄줄 새는 혈세

"기초질서 지키기 강화… 노상적치물 강력 단속을" 제주시 시민원탁회의 토론

제주시는 지난 22일 제주팔레스호텔 에서 시민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시민원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시민원탁회의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중점 추진해 오고 있는 환경·교통·도로 등 3대 분야에 대한'기초질서 지키기, 모두의 도시 프로젝트'추진상황을 시민의 시선으로 진단하고 시민중심의 운동으로 정착하기 위한 토론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현재 제주시가 추진하 고 있는 기초질서 지키기를 위한 교

지난 22일 제주시 제주팔레스호텔에서 열린 제4회 시민원탁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육·홍보·계도 및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고 마을자 치조직 중심의 주민합의에 의한 자발 적 참여에 의한 사례를 만들어 확산시켜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 환경분야를 가장 시급한 분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과대포장과 1회용 품 과다사용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 다. 이에 따라 시민은 물론 관광객 대 상 교육·홍보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노상적치물 문제 해결은 행정의 강력한 단속과 배려의 시민문화를 장려해 나가는 한편 공공도로의 사적점유비용 부담 개념을 도입해 적법성 있게 해결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제주시·서귀포시 감사 결과 의사능력 미약 급여 대상자 관리자 지정 안돼도 급여 지급

행정에서 절반도 하지 못한 공사를 준공처리한 것도 모자라 수 천만원 의 보조금을 업체에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제주 시와 서귀포시 읍·면·동 대행감사 결 과를 24일 공개했다. 감사가 이뤄진 기간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상 반기까지로, 제주시는 외도·노형·오 라·아라·봉개·건입·용담동과 추자면 이며, 서귀포시는 송산·대륜·대천동 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감사 결과 제주시는 지적사항 26 조치하고, 제주시장은 관련 공무원 2

건이 적발돼 5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및 6495만4000원을 회수하라는 요 구를 받았다. 서귀포시는 지적사항 12건에 신분상 조치 1명, 1316만 9000원 회수 요구가 내려졌다.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제주시는 2016년 10월 몰아친 태풍 '차바'로 농경지 경계석이 훼손되자 이듬해 복구를 위해 보조금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돌담쌓기 총 물량 245㎡ 가운데 70㎡ (28.5%)만 시공한 뒤 계약물량을 전부 시공한 것으로 준공처리, 보조금 지급 신청을 했고, 행정에서는 이를 그대로 인정해 보조금 약 1550만원을 지급했다.

감사위는 "보조사업자에게 과다하게 지급된 보조금 1280만원을 회수 지하고 제조시자의 과려 고묘의 2

명에게 각각 주의를 촉구해야 한다" 고 요구했다.

서귀포시의 경우에는 18세 미만 아동, 발달장애인 등 의사능력이 미 약한 복지급여 수급자 5명(2016년 책정)에 대해 관리자를 지정하지 않 은 상태로 급여를 지급해 관련 절차 를 조속히 진행하라는 요구를 감사 위로부터 받았다.

이 밖에도 제주시는 ▷민간경상보 조사업 지도·감독 및 정산 소홀 ▷수 의계약 추진 부적정 ▷재가노인 식 사배달사업 추진 부적정 ▷하자담보 책임기간 설정 부적정 등의 지적을 받았고, 서귀포시는 ▷보조금으로 취 득한 물품 사후관리 소홀 ▷리·통 행 정운영비 집행 및 정산 부적정 등이 지적됐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제주 생물자원의 재발견 "원석을 보석으로"

JTP, 효능 입증 40종 자료집

우수한 효능이 확인된 제주 생물소 재자료집이 나왔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JTP) 생물종다양성연구소는 지난 10여 년 동안 제주 생물자원의 산업화 소재개발 연구를 토대로 제주 생물소재 자원 40종에 대한 과학정보를 담은 'Developmental Resources Data Book 생물종다

양성연구소 개발소재자료집'을 펴냈 다고 24일 밝혔다.

자료집에는 JTP 생물다양성연구소에서 10년 넘게 연구한 성과 가운데산업화 가능성이 높은 생물소재들이수록돼 있다. 2015년 1차 발간에 이어 이번에 10여 종의 산업화 우수 생물소재 정보가 추가됐다.

물소재 자원 40종에 대한 과학정보 자료집에 수록된 생물자원들은 그 를 담은 'Developmental 동안 생물종다양성연구소가 수집한 Resources Data Book 생물종다 육·해상 생물자원 1만7000여점에 대 한 1차 기능성 평가를 거쳐 약 550여점을 선발한 뒤 2차 정밀기능성 시험 분석을 통해 생리활성이 매우 뛰어나고 산업화 가능성이 높은 생물자원 40종을 발굴한 것이다.

특히 과거 감귤 생산량을 조절하기 위해 버려졌던 '풋귤'은 시험을 통해 피부주름개선 및 보습에 탁월 한 효능을 보였고, 피부 건강 관련 건강기능식품 산업화 가능성이 높은 자원으로 거듭나면서 향후 감귤 출하량 조절과 함께 농가 소득 향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제보청기 &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캔·페트병 직접처리로 비용 절감에 기부까지

사업 수익금 교육기금 기탁

서귀포시가 지난 7월부터 재활용도 움센터 8곳에서 전국 최초로 시범실 시한 '캔·페트병류 직접처리 시범사 업'을 통해 행정비용을 줄이고, 수익 금은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 기금으로 기탁했다.

시는 24일 캔·페트병류 직접처리 시범사업 첫 해 수익금 167만2000원 전액을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과 인

대 표:현 문 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재 육성을 위한 서귀포시교육발전기 금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재활용도움센터 내에 설치된 자동수거보상기를 통해 모아 진 캔과 페트병류를 재활용업체로 직접 처분해 기존 운반·선별 등에 소 요되던 처리비용 절감과 행정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기존 5단계(배출→수거 →집하→선별→처분)의 처리절차를 3단계(배출→수거·선별→처분)로

줄이고, 재활용도움센터가 단순히 쓰레기 배출 시설이 아닌 재활용자원의 공급처 역할까지 하고 있다. 시범사업에는 6개 재활용업체(화순자원, 동부자원, 백두자원, 성심자원, 조은자원, 부산수지)가 참여, 재활용도움센터에서 압축된 캔·페트병류를 직접 수거·처리하고 있다.

시는 올해는 시범사업 첫해인만큼 수익금을 교육발전기금에 기탁했고, 내년부터는 연간 500만원정도의 수 익이 예상되는만큼 직접 세입에 편 성해 사용할 계획이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NAVER 그랜드보청기 🔻 🔾

네이버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서사라사거리 동쪽 100m 행복빵집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

064-725-9275



